

## “디자이너의 의식이 문제다”

권혁수 | I&I 이사 · 경원대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

“90년대 이후 우리 출판계는 독자들 눈높이 차원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개성 있는 디자인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익명성의 무책임한 배설행위나 대중성의 저급한 과시행위로 출판과 디자인이 악용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 디자인은 책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미디어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디자이너의 시대정신이 결국 우리 출판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사진은 <일본 현대 북 디자인>전이 열린 예술의 전당.

‘인쇄된 문자’에 대한 맥루한의 이해는 참으로 명료하다. 그는 중세의 필사본 시대와 비교해 인쇄술에 의한 과거 500년 동안 책의 역사를 “세계 자체에 대해 큰 소리로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미디어”의 혁명사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마치 그의 견해를 증명하듯 독일 문화공보성장관 괴벨스의 지휘 아래 수많은 책이 불탔다. 1933년 5월 10일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5년 뒤 브레히트는 이런 시를 썼다.

### 책, 세계를 향한 크고 용감한 목소리

“위험한 지식이 담긴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리라고 / 이 정권이 명령하여, 곳곳에서 / 황소들이 끙끙대며 책이 실린 수레를 화형장으로 끌고 왔을 때, 가장 뛰어난 작가의 한사람으로서 / 추방된 어떤 시인이 분서목록을 들여다보다가 / 자기의 책들이 누락된 것을 알고 / 깜짝 놀랐다. 그는 화가 나서 나는 듯이 / 책상으로 달려가, 집권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 나의 책을 불태워 다오! 그는 신속한 필치로 써내려 갔다. 나의 책을 불태워 다오! / 그렇게 해 다오! 나의 책을 남겨놓지 말아 다오. 나의 책들 속에서 / 언제나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 너희들이 나를 거짓말쟁이처럼 취급한다면 말이나!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 나의 책을 불태워 다오!”

하! 과연 브레히트다. 늘 지식인들의 허위적 삶과 반성적 일상을 앞장서 고백하는 그답다. 21세기? 나의 불길한 꿈은 아직도 20세기다. “나의

책을 불태워 다오!”

나의 출판 디자인 이력은 이 땅의 80년대와 함께 시작됐다. 책을 벗하고, 책 속에 묻혀 살자 결심한 것은 그 책 속에 ‘세계를 향한 크고 용감한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한바탕 내지르는 비명소리나 깔깔거리는 유행어나, 앞다퉈 실적으로 쌓이는 거룩한 기침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이야기하고 좀더 나은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가꾸기 위한 제안과 권유, 반성과 자각의 목소리였다. 한마디로 진실이었다. 거짓말쟁이들에게는 불태울 수밖에 없는, 불타는 목소리였다. ‘분서’(焚書)였다.

### 커뮤니케이션의 형식과 내용 선택에 관여해야

요즘 21세기의 출판, 또는 미래의 출판 디자인 환경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면 책의 가치, 출판의 본질, 종이의 질료, 인쇄술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미디어와 디자인의 조화로운 관계를 예측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90년대 이후 우리 출판계가 독자들 눈높이 차원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개성 있는 디자인을 생산해왔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미명 아래 익명성의 무책임한 배설행위나 대중성의 저급한 과시행위로서 출판과 디자인이 악용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 개인의 취미나 신변잡기의 고백성 기록들이 가볍고

경쾌하게 책으로 묶이고 치장돼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솔직한 것과 사회적으로 진실한 것은 다른 것이다. 출판은 사회적 진실이어야 한다. 이는 출판의 과거고, 현재며, 미래다. 출판 디자인도 그렇다.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 책을 만든다. 그 책이 살아있는 나무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는가를 묻는, 아직도 그 의미를 새기는 주체(출판인, 편집자, 작가, 디자이너...)라면, 그는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채널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든 출판의 미래를 반드시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사회적 환경이 아니라 의식의 주체인 것이다. 특히 늘 유행성 최첨단에 동요하기 바쁜 우리의 천박한 문화행동의 주체의식은 어떤지 따져볼 문제다.

종이책과 e-북이 서로 병존하거나 교체되는 이 시대에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지식을 분별하며 그에 적합한 시간과 공간적 조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형식(미디어)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내용(메시지)을 검증·검열하는 것 또한 한국 출판, 출판 디자인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다.

“나의 책을 불태워 다오!” 이 외침은 21세기 한국 출판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인가, 아니면 진실을 향한 불멸의 정신인가? ●